

식품원료 확보방안

林 雄 圭

<서울大 農大 教授>

1. 머리말



우리나라는 논·의 면적이 130만 정보, 밭이 120만 정보로 국민 1인당 소유면적은 175평으로 이 면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식료를 전부 확보할 수 있는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여서 야산지나, 간척지를 개발하여 식량자급 및 식품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민간기업체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싼 원료와 어떻게 경쟁하느냐에 대한 기업성이 문제이다.

한 예를 든다면 제주도, 경남, 전남에서 맥주보리(이는 맥주 뿐만 아니라 불엿, 위스키, 고추장 등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를 재배하고 있는데 가격이 외국 보다 무려 2.59배나 비쌀 뿐만 아니라 질도 균일하지 않아 맥주 제조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호프는 매년 단보당 수량이 늘어나고 수매가격이 인상되어 강원도에서는 가장 수익성이 좋은 작물이 되었다.

필자가 작년 세계랭킹 2위인 일본의 「기린」 맥주를 방문했을 때 「Kubo」상무는 일본에서 소비되는 맥주보리만도 65만% 정도이며 일본도 국토가 좁아 도저히 이 많은 양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어 맥주보리 농장을 호주에 설립했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슈퍼마켓에 나가 산더미 같이 쌓인 식품을 보면 국산원료가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밀가루 식품을 보면 사용된 원료는 거의가 외국산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 때 국산원료의 일부 사용을 장려한 적도 있으나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어느 제과회사 사장이 자기회 회사에서 쓰고 있는 원료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기는 명함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가격이 비싸다는 점과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점, 또한 불량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

식품공장 하나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원료가 들고 우리는 계절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자의 부담, 불량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년중 공급이 안되고 있어서 식품원료의 수요공급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수출보다는 일방적인 수입이 현실적이다.

2. 국내원료 확보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식품원료가 한 계절에 생산되기 때문에 특히 과일류가 심한데 저장하여 식품제조를 하기 어려워 이자의 부담, 재고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농가소득을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원료는 생산을 하여야 한다.

전량 생산은 어렵다 하더라도 원료의 일부를 생산하여 기업의 안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업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국내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실행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원료는 특용작물이 많기 때문에 그 규격이나 품질, 병, 해충 등이 문제가 된다.

한 예로 필자는 1982년 더덕의 인공재배를 장려한 바 있는데 더덕은 2년이면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규격이 된다.

즉 직경이 1.5~2cm, 길이 13~15cm가 되어야 가공할 수 있다.

더덕인 경우는 야산지에 심어 회사가 구매하여 적정가격을 주어 농가소득을 올리고 회사는 안정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더덕은 수입이 불가능하고 수출의 소지는 많다.

또 한 예로 최근 건강식품으로 울무제품이

대단히 다양한데 이 울무는 우리나라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어느 지방이나 재배가 가능한데 집단재배 보다 분산재배를 하여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원료는 자금 회전이 빨라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식품회사와 계약을 하여 계획적인 생산체제로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외국원료 확보

국내에서 도저히 생산이 불가능한 coffee나 coconut 등은 전량 수입을 하여야 하는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료는 가격의 변동이 심하여 안심하고 기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수입만 할 것이 아니라 해외농업 진출을 하여서 생산성이 좋은 열대지방에서 원료를 재배해 들여 오는 일이 바람직하고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이 방식을 택한지가 오래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호를 개방해서 해외에서 원료를 생산해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국내외에서 식품 나뭇대로의 원료를 확보하여 기업을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고 외국의 식품원료 식민주의라는 밤주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버린 오물은 앞장 서서 줍자